

【오카야마에서 바나나 재배?】

안녕하세요, 오카야마시장 오모리입니다.

지난번 오카야마시 미나미 구에 있는 농업법인 주식회사 D&T팜이라는 농장을 견학했습니다. 이 회사는 키타 구 아시모리 지역에 있는 구 오카야마시립 후쿠타니 초등학교와 유치원 터를 활용하는 사업의 우선 교섭권자로 선정되어 방문하게 되었습니다.

농장에서는 울창한 숲을 이룬 오카야마산 바나나 외에도 파인애플, 파파야, 원두커피 등 200 종류이상의 농작물이 무농약으로 재배되고 있었습니다. 또한, 바나나와 파인애플을 시식해봤는데 노랑게 익은 바나나는 참 달았고 껍질까지 먹을 수 있었습니다. 잘 익은 파인애플은 심까지 먹을 수 있고 단맛이 농축되어 있었습니다.

이 회사는 일본의 농업을 건강하게 만든다는 것을 이념으로 농업 바이오 벤처를 독자적인 기술로 바나나 등 열대지역에서만 재배되는 농작물을 오카야마에서 재배해 현 내외로부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.

이 기술은 씨를 마이너스 60 도의 극한 환경하에 두고 추위를 견디는 유전자를 발현시켜 작물의 내한성을 높임으로 성장을 크게 앞당겨 수확량을 늘리는 것이었습니다

이 회사는 새로운 도전으로 극한의 땅 시베리아에서 곡물 재배를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. 이것이 성공하면 식량난 시대의 도래가 우려되는 가운데 일본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재산이 되리란 생각에

가슴이 설칩니다.

한편, 오카야마시에서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창업에 도전하고자 하는 분들을 지원하는 「오카야마 · 스타트 업 지원거점」을 올 여름에 설치합니다.

본 거점은 JR 오카야마역 앞에 있는 상업 시설의 이코토 니코토안에 있는 츠타야 북 스토어의 한 부분에 설치된 창업에 관심 있는 분들이 부담 없이 교류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스타트 업에 필요한 조언을 해줄 코디네이터를 배치할 예정입니다.

2015 년 오카야마시의 개업 률은 5.5 2 %로서 정령지정도시의 평균을 밑돌고 있습니다. 앞으로 농업 분야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전혀 없는 발상이나 전통적인 스타일을 크게 바꾸어 나가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오카야마에서 차례차례로 생겨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.